

별난 순 별난 순장님 - 김성진 순장

페스티벌 된 즐거운 순예배

고촌에서 강화 외포리까지. 넓은 김포땅에 흠어져 있는 셋별5순 가족들은 금요일이면 '순예배'를 사모하며 열 길을 한 길처럼 달려온다. 그리곤 셋별같은 눈망울로 주님의 말씀을 나눈다.

회복의 첫 열매

선교사 파송, 믿지 않는 가족들의 회심, 순합심 성경1독, 전도, 미자립교회 섬기기 등 그동안 셋별 5순의 행복한 추억들이다.

김순장이 처음 셋별5순 순장이 되었을 당시만해도 순원은 모두 3가정이었다. 그러나 1년 후 15가정으로 늘었고 작년 12월 15일 셋별6순으로 분순했다. 셋별5순이 이렇게 '초롱 초롱' 살아있게 된데는 김성진 순장의 헌신을 빼놓을 수 없다.

무엇보다 김성진 순장은 순원들을 향한 사랑이 극진하다. 그의 사랑의 가장 큰 표현은 '중보기도'. 그의 기도의 우선순위는 늘 순원들이다. 순원들을 위해 기도하다보면, 정작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시간이 없는 날이 많다.

하나님께서서는 기도 가운데 김순장이 순원들의 필요를 보게 하시고, 그들을 돕는 구체적인 방법들도 생각나게 하신다. '일대일 큐티 짝'은 순원들이 개인적인 아픔들을 더 솔직하게 나누고 서로를 지혜롭게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됐다. 모두 9가정으로 아이들까지 20여 명이 넘는 셋별5순은 순원들끼리 서로의 이름도 모르기 십상이다. 처음에는 이름표를 달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큐티 짝'은 순원들끼리 개인적인 교제를 하게 하는데는 큰 기여를 했다.

김순장의 기도를 닮은 순원들의 중보기도의 열매들도 크다. 지난 해 10월 동북아시아 선교사로 출국한 한 가정의 그 열매와 부흥의 시작이었다고 김순장은 고백한다. 그 가정을 선교사로 파송하던 순예배 때였다. '교회에 상처를 받았다'며 수십년간 교회를 등지던 선교사 자매의 어머니가 회심하는 역사가 있었다.

순원들은 중보기도의 맛을 느낀 후 기도의 용사들이 되었다. 함께 기도하니 순원의 믿지 않는 남편이 순예배에 참석하게 됐고 실직위기에 있던 형제가 더 좋은 직장을 얻기도 했다.

'성경1독 감사예배', '미자립교회 돕기 전도', 등 셋별5순에는 초롱 초롱 별빛같이 고운 애기들이 넘친다

순예배 콘티 만들어요

또한 김순장의 순원 사랑에는 ‘늘 최선을 다한다’는 원칙이 있다. “순예배는 하나님이 주신 페스티벌이에요. 최선을 다해야 하죠”

그는 매 순예배를 위해 콘티를 짠다. “전 말재주가 없어요. 더듬거리는 제 말 대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세요.” 그의 노트에는 순예배 순서에 맞는 대사(?)들이 구체적으로 기록돼있다. “계획대로 되는 적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제 틀대로 할려는 거 회개할 때도 많아요. 제가 잘 못하니까 늘 준비는 열심히 해야하니까 노력해요”

그가 콘티를 준비하는 이유이다.

올초 24명의 순원들이 성경 전체를 조금씩 나눠 순원이 하나가 되어 ‘성경1독’을 완성해내기로 했다. 김 순장은 성경 1독계획표를 짜서 순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는 흑이라도 계획표대로 못읽는 순원들을 대신해 전체를 1독해 하나님께 약속한 분량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성경1독 봉헌예배날까지 매일 전철 출근길을 오가며 한 달 반만에 성경을 일독했다. 셋별5순은 올해 2월 10일 ‘성경1독 감사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렸다.

이 일을 계기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선물이 있다. “전 이때 부터 책 읽는 재미를 얻게 됐어요. 그후 읽은 책이 평생 읽은 책보다 많다’며 씩스러운듯 웃는 김순장. 그리고 그는 ‘내가 체험하고 알아야 순원들을 가르친다’고 생각해, 아버지학교, 은사배치 세미나, 일대일 지도자반,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 등 교회에 프로그램들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셋별5순의 순원들의 열심도 대단하다. 순전도 실습에서는 한 순원의 제안으로 근처 미자립 교회 돕기에 나섰다. 인근 주택가 1천여 세대에 그 교회 후보와 삶은 계란과 떡을 돌리며 늦은 밤까지 전도에 여념이 없었다.

이날 전도를 마치고 집으로 모두 돌아간 시간. 재미있는 헤프닝이 있었다. 순원의 5살난 아들 준형이가 ‘우리 아파트에서도 전도해요’라며 울어대, 늦은 밤에 다시 전도지를 돌리는 ‘즐거운 소동’이 있었던 것. 그의 열성적인 노력이 셋별5순의 부흥의 이유인 것 같다고 하자 ‘너무 좋은 순원들을 만났기 때문이다’라며 웃는다. 알콩 달콩 할 얘기도 많은 셋별5순. 김성진 순장의 ‘순전한 순종’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앞으로 어떤 흐뭇한 애깃거리들을 만들어주실까?

신혜림 hellina@onnuri.or.kr

* 출처 : 온누리신문